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3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3. 4. 13. (목), 14:10~18:20
- ▣ 장 소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회의실
- ▣ 출석위원 :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제척사유 고지 및 의결방식 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	3
2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	18

【검토사항】

3	「한국의 갯벌」 (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검토	31
4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관련 세계유산 영향분석 검토	34

심 의 사 항

1.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

가. 제안사항

「한양의 수도방어성곽」(신청명 :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에서 「한양의 수도방어성곽」(신청명 : <한양의 수도성곽 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2022년 제6차 회의(2022.12.8.)에서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됨에 따라, 등재신청후보로 선정할지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조, 11조

제10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① 시·도지사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우선등재 목록 유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접수된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7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제3항에 따른 평가과정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유산의 후보 지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1차 보완사항을 통지하며, 전년 3월말까지 2차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 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등재추진 경과

○ 한양도성 등재 추진경과

- 2012.1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6.1월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7.3월 : 이코모스 등재불가 권고→등재신청 철회 이후 “잠정목록” 지위 유지
- 2019.1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북한산성 등재 추진경과

- 2018.4월 : 잠정목록 심의 결과 ‘부결’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서울시·경기도 등재 추진경과

- 2022.7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보류’
- 2022.1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결과 ‘선정’(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 2023.1월 : 잠정목록 조정
 - 잠정목록 명칭 조정 : 한양도성 →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 잠정목록 구성요소 조정 : 한양도성 →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추진경과

- 2023.2.20. : 제1차 소위원회 개최(유산명, 유산의 가치, 등재기준, 서술, 유산의 속성 등 보완 필요)
- 2023.3.9. : 제2차 소위원회 개최(유산명, 등재기준, 비교연구 등 보완 필요)
- 2023.3.30. : 제3차 소위원회 개최(등재기준, 비교연구, 보존관리 등 보완 필요)

○ 유산 구성

연번	구분	문화재명	길이	유산/완충구역 면적
1	도성	서울 한양도성(사적)	18.6km	유산구역 : 194,90(ha) 완충구역 : 5412.46(ha)
2	입보성	북한산성(사적)	11.6km	
3	창성	홍지문 및 탕춘대성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3호)	5.1km	

라. 등재신청후보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등재신청후보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신청내용(*서울특별시 작성 요약자료 참고)

1)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 유산구역(문화재보호구역), 완충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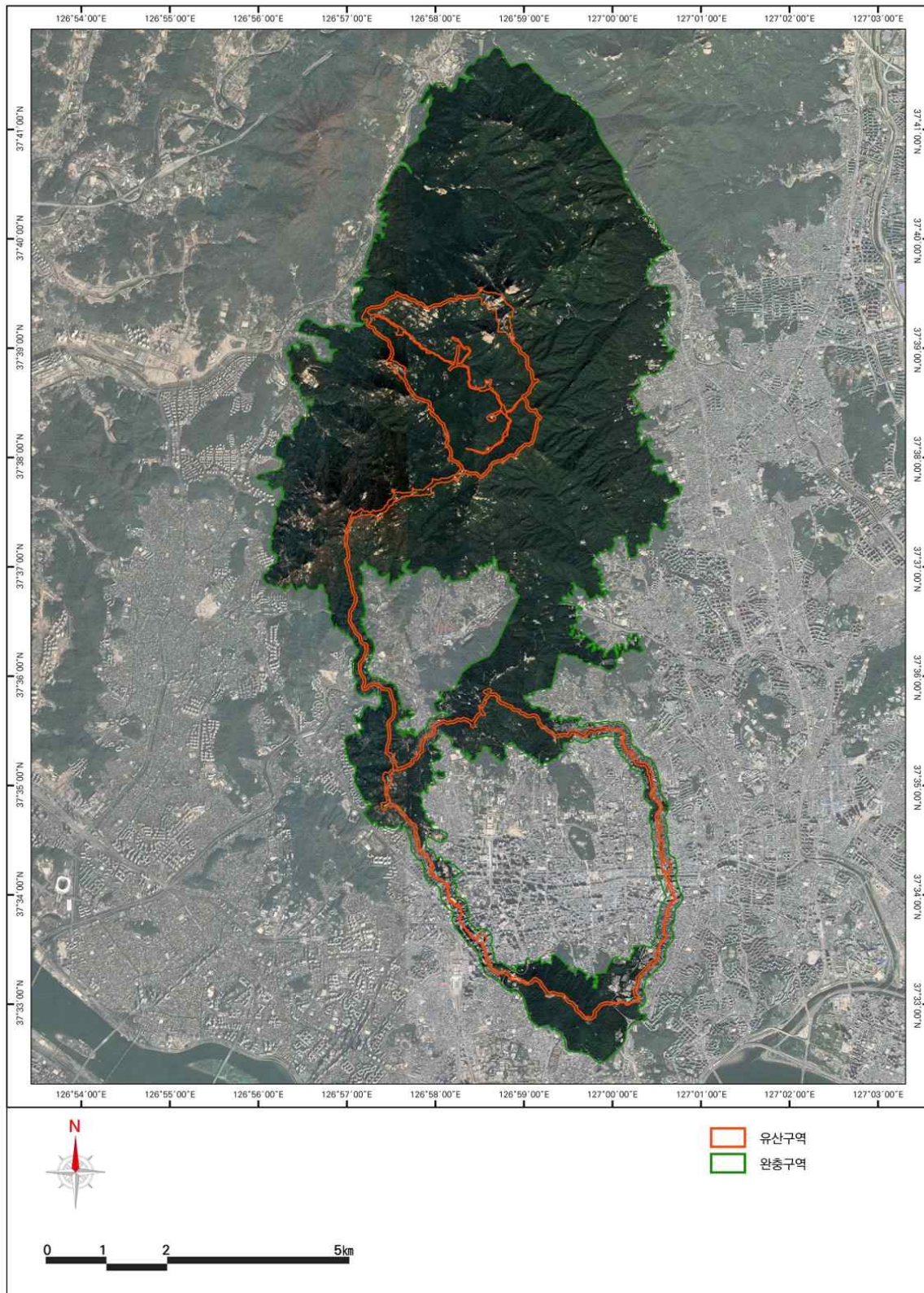


그림 1. 신청유산 전체 위성지도

2)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가) 등재기준 : (iii), (iv)

-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 축성 전통의 창의적인 계승을 보여주는 독보적인 증거이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는 고대부터 산지의 능선과 계곡을 이용하여 성벽을 쌓는 포곡식 성곽을 축조해 왔다. 신청유산은 14세기 포곡식으로 쌓은 도성에 연접하여 18세기 포곡식 입보성과 창성을 확장시킨 대규모의 다중 포곡식 성곽으로 완성되었다. 이는 기능적 결합과 규모 측면에서 오랜 기간 전승되어온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 축성 전통의 정점을 보여준다.

- 한반도에서는 대부분이 산지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고대부터 산악지형을 활용한 성곽 축조가 발달하였다. 산악을 활용한 다양한 성곽 축조형태 중에서 가장 보편화된 유형은 계곡을 감싸는 능선을 따라 축조된 포곡식 성곽이다. 포곡식 성곽은 자연 지세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내부의 구릉 및 평지 구간을 확보하여 수용력을 극대화하였다. 자연절벽 등의 구간으로는 외부의 적이 진입하기가 불가능하고, 협곡이나 수로를 활용한 공성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소규모의 병력으로 대규모의 병력을 방어하는데 효율적이었다. 포곡식 성곽은 초기에는 대피를 위한 산성에서 출현하였으나, 점차 평지에 위치한 도시 성곽에도 보편화되었다.
- 신청유산은 도성, 입보성, 창성이 모두 포곡식으로 축조된 성곽이면서 세 성곽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포곡식 성곽의 전형과 정점을 보여준다. 기능이 다른 세 포곡식 성곽을 연결한 것은 한반도의 포곡식 성곽 중에서도 유일한 형태로서 상호간의 연계를 통해 방어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되었다. 이는 동북아시아 포곡식 성곽의 가장 발전된 형태인 다중 포곡식의 사례를 입증한다.

- (iv)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산악 지형의 장점을 활용한 동북아시아 수도성곽 유형의 변화와 발전을 종합적으로 예증하는 탁월한 사례이다. 한반도의 수도성곽은 산성에서 출발하여 산성-평지성의 이원적 형태와 평산성의 일원적 형태로 발전하였다. 신청유산은 두 유형을 결합한 최종단계로, 국제정세와 군사환경 변화 속에서 수도의 기능과 방어전략을 극대화한 수도성곽의 발전을 보여준다.

- 동북아시아의 수도성곽은 국가 및 시대별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평지에 축조된 수도성곽은 단곽식, 복곽식, 다중의 성곽을 잇는 복합 구조의 성곽으로

구분된다. 한반도에서는 기원전 산악의 궁성에서 출발하여 궁성과 입보성이 짝을 이루는 이원적 형태로 발전하였다. 국가의 규모와 통치체제의 발달에 따라 평지에 궁성, 행정시설, 상업시설, 거주시설을 포함하여 수도성곽을 축조하기도 하였다.

- 신청유산은 14세기 축조된 도성에 16~17세기에 국제정세와 군사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18세기에 이르러 유사시 도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물자를 보관하는 창성과 이동하여 방어하기 위한 입보성이 추가로 건설하였다. 이들 성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수도성곽을 대표하는 두 유형이 결합되었다.
- 이는 한반도 수도성곽 유형의 단계적 발전을 예증하는 사례로서 유사시 적의 공격을 분산하고 백성과 함께 안전하게 산성으로 이동하여 방어하는 전략을 구현한 결과였다. 신청유산은 5세기에 걸친 한반도 도성의 발전과 18세기 도성 방어계획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산성-평지성의 유기적 관계를 지속하며 발전해온 한반도 수도성곽 유형의 창의적 변화를 보여준다.

나) 유산에 대한 설명

○ 유산명칭 :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

○ 구성요소

구성요소			기능	현황	비고
성벽과 성문	성벽	도성	경계/방어	석성, 암반	사적
		입보성	경계/방어	석성, 암반	사적
		창성	경계/방어	석성, 암반	서울시 유형문화재
	성문	성문, 암문, 수문	출입, 보급, 배수	25개소	국보(승례문) 보물(홍인지문)
성내 유적지	비축시설	창고지	곡식 및 무기 저장	4개소	경기도 기념물(상창)
	지휘시설	장대지	군 지휘소	3개소	1개소 복원
	운영 및 관리시설	행궁지	국왕 숙영 시설	1개소	사적
		관성소지	성곽 관리	1개소	경기도 기념물
		유영지	군사 숙영 시설	3개소	
		승영사찰	성곽 관리	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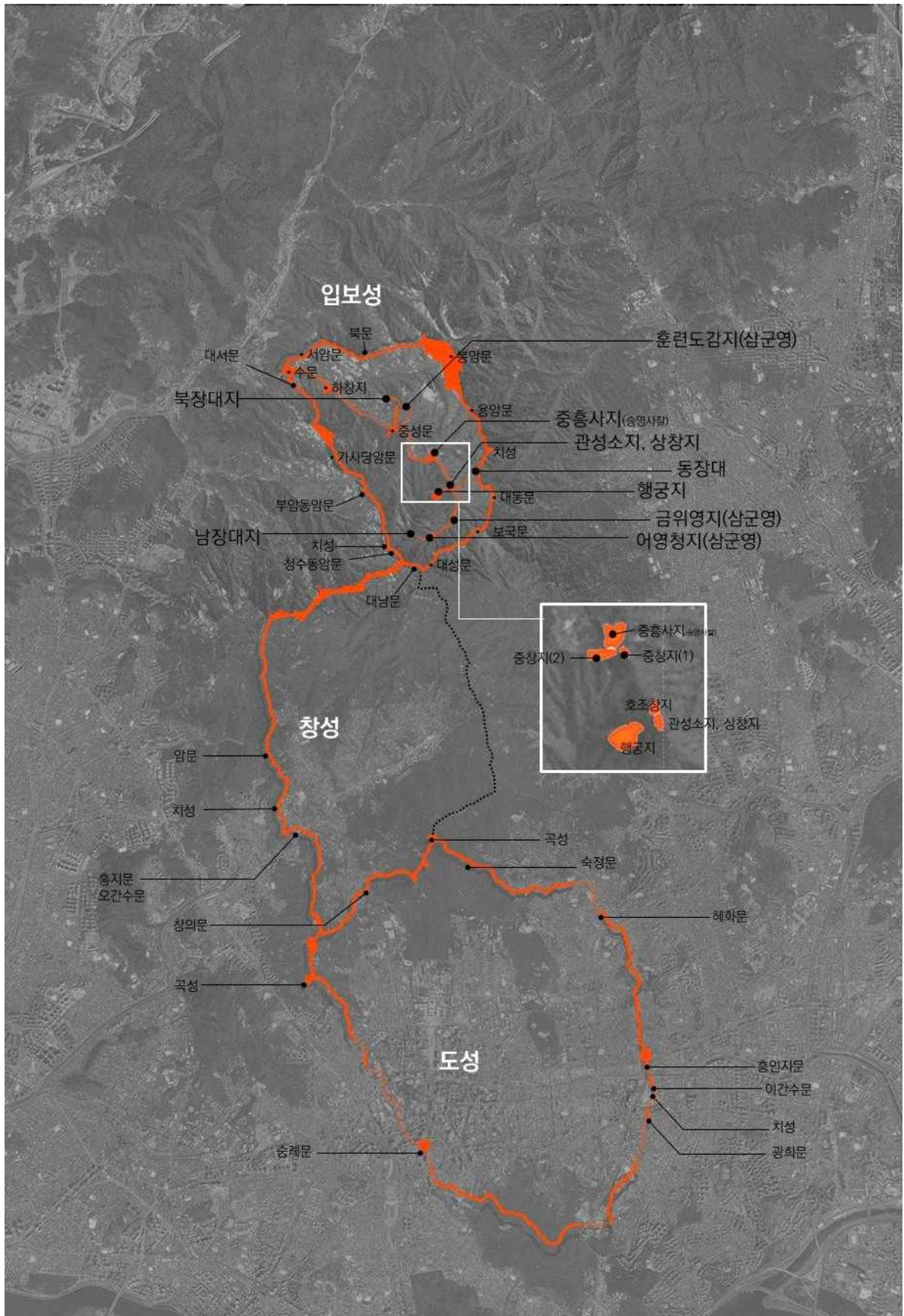


그림 2. 신청유산의 구성요소

○ 유산개요

- 신청유산은 조선(1392-1910)의 도읍지 한양의 방어를 위해 축성한 수도성곽으로, 행정의 중심지로서 왕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도성(한양도성), 유사시 도성민 모두가 이동하여 방어하기 위한 입보성(북한산성), 도성과 입보성에 필요한 물자의 저장을 위한 창고시설 보호를 위해 쌓은 창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유산은 동아시아의 성곽 축조 방식의 하나인 포곡식으로 건설된 수도의 방어시설로서, 동아시아 수도성곽의 전형과 지역적 발전을 예증한다. 조선 왕조는 14세기에 넓은 분지를 둘러싼 산지를 원형으로 연결하여 도성의 경계를 형성하는 성곽을 축조하고 18세기에 이르러 도성의 북측에 새로운 입보성과 창성을 추가하여 현재의 형태로 완성하였다. 신청유산은 포곡식 성곽의 전형적 특징과 함께 한반도 수도성곽의 유형과 발전을 입증할 수 있다.
- 신청유산은 계곡을 감싸는 산지의 능선을 따라 원형의 성벽을 쌓는 포곡식 축조방식을 적용하여 조성되었다. 포곡식으로 축조된 성곽 유형은 한반도 성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전 지형이 70% 이상 산지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포곡식 성곽은 능선을 따라 성벽을 축조하여 평지성과 비교하여 축성에 따른 비용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었고, 분지 및 구릉으로 구성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방어 측면에서도 자연절벽이나 산지 등은 외부의 적이 진입하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협곡을 비롯한 일부 구간만 방어하여도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신청유산은 포곡식으로 축조된 세 개의 성곽이 연달아 이어져 있는데, 기능과 지형에 따른 차이점과 방어 전략적 장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 신청유산은 동북아시아 수도성곽의 유형과 발전을 입증한다. 14세기에 축조된 도성은 수도를 보호하는 기능과 함께 내외부를 시각적·관념적으로 명확히 구별하는 효과를 성취할 수 있었다. 높은 성벽과 위용있는 성문 등으로 구성된 도성을 통해 수도로서의 권위와 상징이 드러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도성의 기능은 5세기 동안 유지되었다. 16~17세기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화와 화포 등 화약 병기의 출현에 대응하여 수도의 방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를 중심으로 한 방어시설의 개선 되었다. 그 결과 도성의 배후 산악지역에 피난과 물자의 저장을 위한 새로운 성곽을 축조하면서 수도성곽의 규모와 기능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성곽의 형태는 동북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축조되었던 수도성곽 유형이 시기적 필요에 의해 단계적으로 발전된 결과이다. 도성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배후에 입보성과 창성이 결합된 대규모의 복합적 성곽군으로 완성되었다.
- 신청유산은 20세기 이후 근대화, 도시화에 따른 수도의 급속한 팽창으로 수도 성곽은 축성 당시의 형태가 일부 변화되기도 했지만 현재에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경기를 연결하는 강력한 상징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대한민국의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관리되고 있다. 중앙부처인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경기도·고양시는 신청유산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유산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보존관리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공동체, 민간단체, 시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산의 모니터링과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

다) 보존 관리 계획

○ 법적제도

구분	관련 법규
공통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산림기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도성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보성	자연공원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창성	도시공원법, 자연공원법,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 보호관리체계

- 보존 관리 및 재정 지원 : 문화재청
- 보존 관리 실무 : 관리단체(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 추진근거 :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13), 북한산성 종합정비계획(2015)

구분		담당 업무
서울시	문화재관리과	도성 및 창성 보존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창성 사적 지정, 입보성 문수봉~용암문 보존관리, 세계유산 등재, 신청유산 활용사업
	한양도성연구소	신청유산 학술조사, 한양도성박물관 운영(상설 및 기획전시, 교육 실시), 동대문역사관 운영, 이간수문·치성 관리
	서울역사박물관	창성 학술발굴조사
경기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입보성 보존관리(설계승인 및 예산지원)
	경기도 고양시 문화예술과	입보성 보존관리 및 상태 모니터링, 내부 유적 문화재 지정
	경기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 신청유산 활용사업

○ 보존상태

- 도성은 현재 서울의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성곽 주변으로 도로 및 시설물이 건설되면서 일부 훼손되었다. 현재 도성의 전체

둘레 18.6km 중 14.5km가 지상부에 남아있으며 사적으로 보호·관리되고 있다. 지적도(1912), 조선지형도집성(1921) 등을 통해 전체 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발굴조사로 성벽 유구가 발견되면 사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입보성은 총 길이 11.6km에 달하는 성벽과 치성, 성문 14개소, 성랑 59개소 등이 확인된다. 1958년 대서문 복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보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성 내부 관련유적으로는 행궁지, 행궁과 산성관리를 맡았던 관성소, 산성의 수비와 관리를 맡았던 승영사찰, 무기와 군량을 보관했던 창고지 4개소가 남아 있다. 행궁지는 발굴이 완료되어 정비 중이며, 나머지 유적의 발굴조사와 정비 계획이 연차별로 계획되어 있다.
- 창성은 총 길이 5.1km이다. 홍지문과 오간수문은 1921년 홍수로 허물어졌던 것을 1977년에 복원하였다. 창성 내부에는 창성과 북한산성 관리를 총괄했던 총융청이 있었고 평창과 선혜창 등 대규모 곡식창고가 있었으나 현재는 훼손되었다.

○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신청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발 압력, 환경적 압력, 자연재해 및 재난, 방문객 및 관광산업의 압력, 유산경계 내 거주하는 주민 등이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 문화재청과 서울시·경기도·고양시는 신청유산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청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청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거주민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 하고 있다.
- 석재로 된 성벽, 성문과 수문, 성곽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압력 요인으로는 식생·풍화에 의한 압력, 그리고 구조적 압력 등이 있다. 목재 건축물인 문루에 대한 환경적 압력은 건축 재료의 노후화, 부식, 흰개미, 재선충과 같은 병충해 피해 등이 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경기도·고양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즉시 보호 조치하고 있다.
- 자연재해와 인공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 중심의 방재체계를 구축하였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신청유산에 예상되는 재난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는 119를 통해 발생 즉시 신고 받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신청유산은 관광산업으로 인한 위협은 적으나 탐방하는 방문객을 대비하여 계절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객의 안전보장과 신청유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탐방로를 조성하여 방문객의 동선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시 방문객 추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간별로 CCTV를 설치하고 방문객의 안전문제 및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 모니터링

- 서울시·경기도·고양시는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및 완전성' 보호를 위하여 신청유산을 지속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일상점검 외에 성벽의 정기 모니터링은 한 달에 한 번을 주기로 이루어진다. 모니터링 활동에는 서울시·경기도·고양시와 자치구, 문화재지킴이, 성곽마을 주민도 직접 참여한다. 정기 모니터링에서는 성벽, 문루, 탐방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계절에 따라 석재의 기울기와 배부름 현상 등을 정밀 조사하고 석재의 결빙상태, 식생의 변화를 종합 관찰하여 조치한다.
- 전문가 모니터링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전문가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서울시·경기도·고양시 문화재위원회 및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및 처리가 결정된다.
- 서울시는 2016년부터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각 구청 등과 실시간 CCTV 관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산성 및 탕춘대성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통합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소유권

- 신청유산은 대부분 국공유지이다. 유산구역 중 사유지의 비중은 도성 11.82%, 입보성 9.49%, 창성 12.86%이며, 모두 문화재보호구역과 국립공원에 있다. 이 중 창성의 사유지는 학교법인이 대부분이며 도성과 인접한 사유지는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관리동선, 문화재 관리, 환경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한다.
- 완충구역 내 사유지는 도성 21.88%, 입보성 3.8%, 창성 18.77%이며, 문화재보호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국립공원,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 녹지법 등 기존의 법령과지구 설정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 또한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주변 노후 주택은 주거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 거주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기타사업

- 유산의 보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양도성연구소 및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청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연구 각종 고증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신청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해 공유체험프로그램, 주민교육프로그램, 해설사양성교육, 교사·학생연수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서울시·경기도·고양시는 신문·방송 등 언론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유산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의 발굴성과, 유산관리사업, 국내외 학술대회 등 학술 연구 활동, 시민네트워크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 기타 (진정성 및 보호관리)

- '16년 이코모스 현지 실사에서 한양도성의 진정성은 충분히 입증되었음
- 도성의 보호관리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음을 인정받음
- 한양도성의 보호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북한산성 및 탕춘대성에 통합 적용할 예정임

[기존 등재신청 보완·수정사항]

○ 유산의 명칭

구분	내용
기존 (’22.12.)	• (우선등재목록) 조선의 수도성곽과 방어산성: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 (잠정목록) 한양의 수도방어성곽: 한양도성, 북한산성, 탕춘대성
소위원회 (’23.2.~3.)	• ‘방어’는 성곽의 보편적인 속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한양’으로 신청유산의 시대(조선), 공간(수도)의 범위 한정
수정 및 보완 (’23.4.)	• 한양의 수도성곽(Capital Fortifications of Hanyang) - 단일유산임을 드러내도록 구성요소의 명칭 제외

○ 유산구성

구분	내용
기존 (’22.12.)	• 한양도성 멸실구간 등 현황 반영하여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으로 구성된 연속유산 • 구성요소 : 한양도성(방어시설), 북한산성(방어시설, 성내 유적지), 탕춘대성(방어시설)
소위원회 (’23.2.~3.)	• 한양도성은 「지적도」(1912), 「조선지형도집성」(1921) 등 통해 전체 선형 확인 가능하며, 멸실구간 대부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관리 중임 • 성벽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일부 구간은 암반 등 지형적 요소로 연결되어 있음
수정 및 보완 (’23.4.)	• ‘한양도성(도성)-북한산성(입보성)-탕춘대성(창성)’으로 구성된 단일유산 •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맞춰 유산구역 및 구성요소 재설정 - (유산구역) 신청유산의 속성(압지)와 형태 방어전략 한반도 수도성곽의 유형을 입증하는 자연지형도 포함 - (구성요소) 성벽과 성문(도성·입보성·창성), 성내 유적지(입보성)

○ OUV 명확화

구분	내용
기준 (’22.12.)	• 등재기준 (iii)보완, (iv)집중, (vi)폐기 • 등재기준 (iii) 신청유산은 18세기에 발전한 조선의 성곽 축성기술과 관리체계 종합적으로 예증함 • 등재기준 (iv) 신청유산은 고대로부터 전승돼온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의 이원화된 방어체계를 18세기 수도 방어전략의 변화에 대응하여 건설한 성곽군으로, 수도성곽과 방어산성을 차단성으로 연결하여 일체화된 방어시설로 구현하였음
소위원회 (’23.2.~3.)	•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라는 지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포곡식 성곽 축조 전통으로 자리잡음 • 14세기에 축조한 도성에 18세기에 입보성, 창성 등 기능이 다른 포곡식 성곽을 연접하여 쌓았고 이는 거대한 수도성곽으로 완성되어 방어적 기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 • 수도의 구성과 보호를 위해 성곽을 축조하는 동북아시아의 보편적 흐름 속에서 한반도의 수도성곽의 여러 유형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임
수정 및 보완 (’23.4.)	• 등재기준 (iii), (iv) 집중 • 등재기준 (iii) 포곡식 성곽 축조 전통의 창의적인 계승을 보여주는 독보적 증거 • 등재기준 (iv) 산악 지형의 장점을 활용한 동북아시아 수도성곽 유형의 변화와 발전을 종합적으로 예증하는 탁월한 사례

○ 완전성

구분	내용
기준 (’22.12.)	• 한양도성 총 길이 18.6km 중 14.5km 잔존(78%), 신청유산 전체 35.3km 중 31.2km(88.4%) 잔존 • 한양도성 완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 – 발굴조사를 통해 성벽 유구 발굴 시 사적으로 추가 지정(DDP, 남산 회현자락, 월암 근린공원) – 성벽유구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하물리탐사 실시 및 유산분포지도 작성(이코모스 전문가 자문사항) – 한양도성의 성곽 잔존구간을 측량하여 도면화(2014~2015) – 단절구간 바닥에 흔적을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한양도성의 선형과 정보 전달
수정 및 보완 (’23.4.)	• (’23.3월) 장기적 차원에서 도성의 완전성 보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적 관리현황 조사 – 멸실구간 대부분이 이미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호·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함 ※ 예시 : (장충동 일대) 원지형 보전을 위해 도성 추정선 따라 공동개발 불허선 설정 – (추가제안) 구 서산부인과 주변 특별계획구역 지정·관리, 종로구·중구 대규모 개발로 공공기여분 발생 시 멸실구간 사유지 매입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 비교분석

구분	내용
기존 (’22.12.)	• 동아시아 유사유산 및 국내 세계유산목록 중심의 비교분석 – 속성별 비교(입지 및 유형, 축성기술, 화약무기에 대응, 건설 및 관리체계) • (입지 및 유형) 한반도 성곽건설 전통의 창의적 계승발전 • (축성기술) 18세기에 표준화된 소성식 축성기술로 발전 • (화약무기에 대응) 여장에 총안 설치하고 표준화된 성돌로 한양도성 성벽을 견고하게 개축, 배후 험준한 산지에 건설한 방어산성으로 입보하여 농성하는 전략 마련 • (건설 및 관리체계) 일반인 동원체계에서 전문장인 담당으로 변화, 각자성식 등이 이를 증거함
소위원회 (’23.2.~3.)	• 동아시아 수도성곽과의 비교에 집중 – 동아시아 각국은 대규모의 수도 및 수도성곽을 조성하였고, 수도성곽은 국가별로 지리·사회·경제적 환경 및 시대별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함
수정 및 보완 (’23.4.)	• 동아시아 유사유산과의 비교 : 자연지형 및 지세를 활용하여 성곽 축조 • 중국베트남은 성벽성문 강화 및 외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일본은 궁성 방어 강화에 초점 • 신청유산은 수도성곽의 범위를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확장하여 수도의 방어력을 높이고, 도성민 이동과 농성에 유리한 방어전략을 구현함 • 한반도 수도성곽과의 비교 • 포곡식 성곽인 도성에 연접하여 입보성, 창성도 포곡식 성곽으로 연결하여 대규모 수도성곽 완성 → 포곡식 성곽 축성 전통을 창의적으로 계승한 증거이자 전통의 정점을 보여줌 • 평산성의 도성(일원적 형태)과 인접한 산지에 입보성을 쌓아 기원전부터 전해온 평지성-산성의 이원적 형태의 방어 • 세계유산목록과의 속성 비교 – 아테네 성벽, 인도 자이푸르와 암베르 요새 등과 입지 및 유형의 유사점이 확인되나, 신청유산은 지배층 뿐 아니라 많은 인원의 대피가 가능한 대규모 성곽이며, 입보성과 창성 등의 기능을 가진 성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임

[등재 추진방식]

○ ('23.3월)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 등재추진단 구성·운영

- 서울시 문화재관리과, 경기도 문화유산과, 경기도 고양시 문화예술과, 경기문화재단 북한산성문화사업팀 및 전문연구진으로 통합 구성

구분	내용	인원
등재기획팀	등재신청서 작성, 등재 추진 관련 제반업무 수행	6
학술조사팀	학술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해외 학술교류 등	6
시민협력팀	홍보 업무(홍보물 제작), 시민참여 지원	2
업무지원팀	사무실, 사업예산, 인력 운영사항	2
합계		16

○ ('23.7월) 서울시-경기도-경기도 고양시 업무협약 체결 예정

- 유산의 통합보호관리계획 수립 등 원활한 등재 추진 진행

○ 신청유산 관련 위원회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16명) : 한양도성 보호·관리·활용 관련 정책 제언, 도시경관 관리 차원에서 도성 내·외부 개발계획 방향 검토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추진위원회(18명) :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추진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 논의
- 한양도성 행정협의회(16명) :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및 기본원칙 논의

※ 서울시·경기도·고양시 통합 위원회는 향후 구성 예정

[기존 등재신청 보완·수정사항] ※ (참고자료 2) 비교표 참조

아. 소관부서 검토 의견

- 이번 등재신청서는 등재신청후보 신청서의 고도화 지원을 위한 3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유산명칭, 등재기준, 속성, 비교연구 내용이 보완되는 등 기존의 여러 지적 사항들이 개선됨
- 심의 단계별로 집필진, 전문가, 문화재청의 검토를 통해 신청서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단계에 신청유산이 적합한지의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자. 의결사항

- 조건부 가결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절차에 새로 도입되는 예비평가를 받을 것
 - 출석 8명 / 조건부 가결 8명

2 「대곡천 암각화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선정

가. 제안사항

「대곡천 암각화군」(신청명 :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후보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광역시에서 대곡천 암각화군 (신청명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 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2022년 제6차 회의(2022.12.8.)에서 “보류”됨에 따라, 등재신청후보로 선정할지 여부를 재심의 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10조, 11조

제10조(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신청) ① 시·도지사 또는 유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우선등재목록 유산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하여 줄 것을 문화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세계유산 등재신청 대상 선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접수된 국문 등재신청서 초안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개의 유산을 등재신청연도 전 전년 7월 31일까지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 등재신청 후보 중 제3항에 따른 평가과정 및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신청연도 전년 7월 31일까지 최종 등재신청 대상 1건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종 신청대상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유산의 후보 지위 유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등재신청 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등재신청연도 전전년 12월 말까지 1차 보완사항을 통지하며, 전년 3월말까지 2차 보완사항을 통지한다. 해당 시·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은 1, 2차 보완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등재추진 경과

- 2010.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5.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부결”
- 2020.2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보류”
- 2021.3월 : 우선등재목록 심의 “선정”
- 2022.5월 : 등재신청후보 심의 “보류”
- 2022.12월 : 등재신청후보 심의 “보류”

○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 추진경과

- 2023.2.20. : 제1차 소위원회 개최(유산명, 구성요소, 보존관리 등 보완 필요)
- 2023.3.15. : 제2차 소위원회 개최(유산설명, 비교연구, 보호관리 등 보완 필요)
- 2023.4.6. : 제3차 소위원회 개최(등재기준, 비교연구, 보호관리 요건 등 서술보완 필요)

라. 등재신청후보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등재신청후보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대곡천 암각화군」 신청내용(*울산광역시 작성, 세부내용은 심의자료 요약본 참조)

<유산구역 현황>

신청유산명	중앙점좌표	유산구역 면적	완충구역 면적	총 면적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	N35°36'30.42", E129°10'26.39"	43.70(ha)	144.15(ha)	187.85(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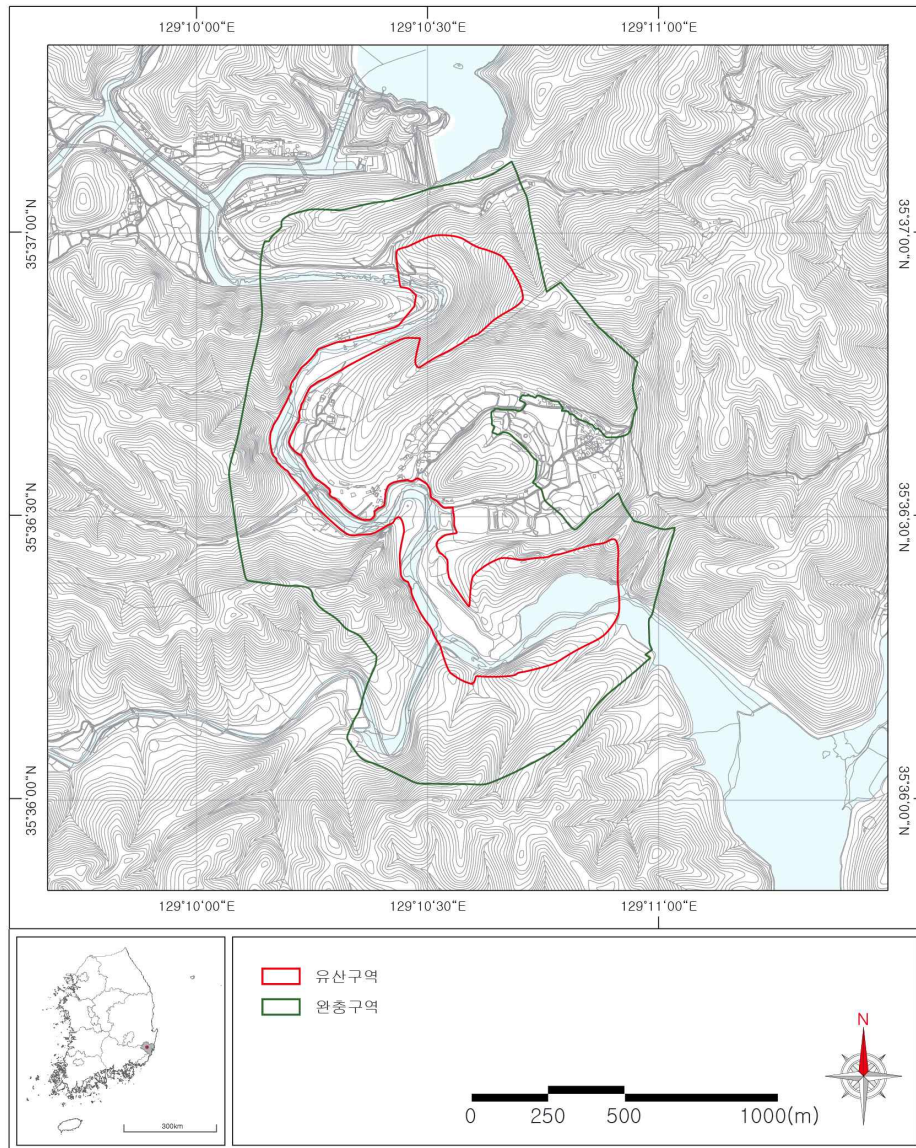


그림 1. 신청유산의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도

○ 유산구성 : 단일유산(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 유산구역 : 하천을 따라 노출된 암면을 중심으로 경계 설정

- 완충구역 : 문화재보호법 상 국가 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구역)과 일치

○ 종합요약(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기술)

- 신청유산은 동아시아 대한민국 동남부 연안 지역의 반구천 일원에 위치한다. 반구천 일원은 가늘고 긴 감입곡류 하천을 따라 절리와 층리가 발달한 암벽이 노출되어 있는 약 3km 구간을 말한다. 이 구간에는 그림과 문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두 바위면이 확인된다.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으로 구성된 단일유산이다.

-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걸쳐 돌, 금속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 인물, 사냥장면, 동심원, 마름모, 문자 등 다양한 주제를 사실적이고 독창적으로 묘사한 그림으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와 예술세계를 반영한다. 특히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바다동물과 육지동물의 종이 구별될 만큼 생태적 특징이 매우 상세하게 새겨져 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고래의 모습, 고래사냥의 전 과정이 담긴 그림은 신석기 시대 해양어로 문화를 보여주는 동아시아의 가장 이른 시기 유산이다.

-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약 6천 년 동안 동일한 공간에 서로 다른 시대와 주제를 가진 그림과 문자들이 새겨진 이례적인 유산이다. 신청유산의 제작 전통은 신석기 시대의 동물 그림이 담긴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제작을 시작으로 하여,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를 거쳐 신라 시대 그림과 문자를 담은 천전리 각석으로 이어졌다. 다양한 그림과 문자를 통해 당시 시대의 모습을 알 수 있고, 동아시아 연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렵·채집문화, 농경문화, 고대(신라) 국가로 변화하는 사회 발전 단계의 순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신라 시대까지 동아시아 연안 지역 사람들의 미적 표현과 문화의 변화 모습을 집약하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충족하는 유산이다.

○ 등재기준의 타당성

(i)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동아시아 연안 지역인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평범한 도구와 보편적 제작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특히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낸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그림들은 선사인의 문화와 예술세계를 보여주고, 고래와 고래사냥 그림의 희소성과 독창성은 독보적 증거이다.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약 6천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진 유산이다. 유산에 새겨진 다양한 그림과 문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연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상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독보적 증거이다.

○ 완전성에 대한 기술

-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표현하는 모든 속성을 전체적으로 잘 포함하고 있다. 신청유산의 규모는 수 천 년 동안 암각화의 제작 전통이 이어진 반구천 일원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모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개발 또는 방치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다만 신청유산의 바위면 일부는 완충구역 밖에서 이루어진 댐 건설로 파생된 환경적 압력을 받고 있었으나, 현재 이러한 압력은 매우 저감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완전성을 유지해나가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진정성에 대한 기술

-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위치와 주변 환경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갖고 있다.
- 신청유산은 처음 조성된 원래 자리에 위치하며 주변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유산의 주변 지형은 고환경의 변화 또는 댐 건설로 인한 변화와 회복 과정을 겪었으나,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루는 전반적인 속성은 변함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 보호관리 요건

-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는 「문화재보호법」이 중심이 되어, 「수도법」,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의 지원에 따라 개발행위 등 압력요소로부터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은 국가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그림과 문자가 집중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 더욱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있다.
- 보존과 정비는 신청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 유지를 위해 전문기관과 공인된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산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한다. 정부는 각종 압력 및 재난재해 등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다.
- 지방정부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청유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하며 관리체계를 이끌고 있다. 신청유산의 일부에 가해지는 환경적 압력을 항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역민의 인식변화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 보존현황

- 암벽면을 중심으로 주변환경을 포함한 신청유산의 전반은 자연상태의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암벽면의 풍화와 박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완충구역 밖에 위치한 댐 건설로 파생된 환경적 압력으로 집중호우 시 일시적인 침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는 2015년부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바위면을 특별히 중점관리 대상 문화재로 지정하여 암면 훼손과 구조 안전에 대한 문화유산 정밀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인공적인 훼손을 방지하고자 지방정부는 보호철책, CCTV, 접근센서 경보체계를 갖추고, 현장관리인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사업이 진행 중이고 수문 설치 후 수위 조절 기능이 강화되면, 바위면 보존처리 방안에 관한 기존 조사연구 결과를 실제 적용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보존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 및 관련 지방정부, 유관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기관 간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 유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현재 신청유산의 개발압력은 매우 낮으며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모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개발시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향후 개발압력의 영향도 낮다.
- 신청유산 주변에 특이 식생은 발견되지 않으며, 일부 귀화종은 제거하고 있다. 유산구역 내를 중심으로 현장관리인이 순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전문가 정기조사를 시행하면서 즉각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
- 중앙 및 지방정부는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를 통한 수위 조절 후에도 기후 변화가 장기적으로 하천의 일시적 수위 상승을 일으켜 유산의 지형에 부정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과, 바위면 침수 시 부유물 등의 타격으로 핵심 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완충구역 바깥에 위치한 두 개의 댐의 수위 조절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기관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이루어나가는 것을 유산 관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 보존환경 모니터링 스마트 관리체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050년까지 반구대 암각화의 예상 침수 일수를 산출해두고 있어,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호우 우려시 유관기관 간 연결체계를 가동하여 미리 댐 수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 지진과 화재 등 재해 및 재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제 피해 발생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재난재해 대응 지침에 따른 정기 사전 모니터링 및 사후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
- 현재 방문객 수는 한계수용능력을 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방문객 증가로 인한 훼손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지방정부는 문화재 돌봄사업을 통한 즉각적인 대응, 문화유산 가치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는 탐방로 구간을 전반적으로 추가 정비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재위원회('22.12.) 심의 의견에 대한 보완사항

○ 유산명칭 : 변경

구분	내용
기존 (‘22.12.)	• 반구대 계곡의 암각화 (Petroglyphs in the Bangudae Valley)
수정 및 보완 (‘23.04.)	• 반구천 일원의 암각화 (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 - (변경사유) ①하천 명칭은 신청유산을 선형의 단일유산으로 이미지화하는데 용이 ②‘반구대’ 용어가 ‘반구대 암각화’를 지나치게 연상시켜 유산 이해에 장애

○ 구성요소 : 속성 기여도 기준으로 구성요소 명확화

구분	내용
기존 (‘22.12.)	• <u>반구대 암각화</u> , <u>천전리 암각화</u> , <u>반구대 계곡</u>
수정 및 보완 (‘23.04.)	• <u>대곡리 반구대 암각화</u> , <u>천전리 각석</u> - (변경사유) ①반구천 암벽면 중 핵심 속성이 집중 분포하는 바위면이 강조되는 단일유산 ②위치 및 제작 시기 차이로 지역민에게 마치 별개의 유산으로 인식된 것 ③반구대계곡은 다른 구성요소와 속성 기여도에 불균형 이루어 삭제 (※반구대 각자군 검토 결과 상기 동일하여 미반영) - 국보 명칭 그대로 활용 : 인지도 유지 및 명칭 혼란 최소화

○ 신청유산의 경계 : 재설정

구분	내용
기존 (‘22.12.)	• 유산구역 - 남쪽과 북쪽 : 암각화로부터 가시권의 경계인 첫 번째 능선까지 - 하천과 절벽면을 기준으로 경계 설정 • 완충구역 : 유산구역의 경계로부터 첫 번째 능선
수정 및 보완 (‘23.04.)	• 유산구역 : 하천을 따라 노출된 바위면 기준 ▶ 유산의 핵심 속성에 집중 • 완충구역: 유산구역 경계로부터 첫 번째 능선에서 주변 경관의 일체성 가시권 고려 ▶ 보존이 필요한 가시권내 경관에 집중 (명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구역)과 일치)

○ 유산설명 : 변경

구분	내용
기존 ("22.12.)	• 반구대 계곡과 암각화(대곡리 암각화, 천전리 암각화)를 구분지어 설명 - 반구대 계곡의 특징과 장소의 선택 이유 - 두 암각화를 아울러 그림의 제작시기, 주제, 제작·표현기법, 구도 설명 • 역사와 발전 : 한반도의 시대별 문화적 특징을 통해 암각화를 새긴 이유 설명
수정 및 보완 ("23.04.)	• 속성표 및 속성 기여도 분석 결과 반영 <서술의 흐름> ① 두 암각화의 공통된 속성 일괄 설명 및 가치가 누적되는 공간의 장소성 언급 ② 두 암각화는 상태-주제-구도-제작표현기법-묘사방법-문화상-의의 순서로 기술 • 2장(설명)과 3장(비교분석)의 논리적 일관성 도모 - ICOMOS 바위그림 주요 요소 기준 검토 결과 반영 (미적 우수성, 주제의 희소성 및 독창성, 지역의 오랜 제작 전통의 증거) - 2장(모든 속성 설명)→3장(기여도 높은 속성을 추출하여 중점 비교) • 선택에 의한 장소성보다 제작 전통이 누적되는 장소성 측면에 집중 • 수렵·채집문화, 농경문화, 고대(신라) 국가로 사회 발전 단계 설정 (어로 문화는 수렵 문화에 포함, 고래 그림 등 강조 시 해양어로 문화로 구분 서술) • 역사와 발전 - 유산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서술 (유산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조건을 충족함을 뒷받침) - 반구대 및 각자군 : 명승의 관점에서 선사 암각과 다른 시대적 전통성

○ 등재기준 : 수정

구분	내용
기존 ("22.12.)	• 등재기준 (i) 구도와 표현기법상 창의적 걸작 • 등재기준 (iii) 제작 전통 지속, 고래사냥의 전 과정을 담은 독보적 증거
수정 및 보완 ("23.04.)	• 등재기준 (i) 강화, (iii) 강화 - 등재기준 (i) 평범한 도구와 보편적 제작기법으로 다양한 주제를 높은 수준으로 묘사한 그림. 특히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사실적 입체적 그림은 선사인의 문화와 예술세계를 보여줌. 고래와 고래사냥 그림의 희소성과 독창성은 독보적 ▶ 그림이 지닌 회화적 창의성 검토 (※형식에 기반한 누적된 예술성 : 3.1a 일부 반영, 정밀 검토 진행 중) - 등재기준 (iii) 6천 년 동안 암각 제작 전통이 이어진 유산. 그림과 문자는 선사~역사시대 동아시아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상과 변화를 한눈에 확인하는 독보적 증거 ▶ 그림을 통해 확인되는 여러 시대의 문화, 한 캔버스에 누적됨의 독보성 검토

○ 완전성 : 보완

구분	내용
기존 ("22.12.)	• 두 암각화 및 반구대 계곡의 가치 및 규모의 충분함 • 바위면 손상도가 높지 않으며, 댐 수위 조절 방안 마련 계획임을 제시
수정 및 보완 ("23.04.)	• 속성표 기준 주요 속성(그림과 문자)을 기술, 규모의 충분함 서술 •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댐 건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그간 보존관리 순차적 노력(2005년, 2014년)을 통해 크게 저감된 상태임 서술 - 사연댐 수위 조절 방안은 현재의 완전성 유지 및 기후위기 등 미래 완전성 유지의 대응임을 강조

○ 진정성 : 보완

구분	내용
기존 ("22.12.)	• 진정성은 높은 수준, 원래의 자리에 위치함 • 사연댐으로 인한 계곡 수위 상승에도 주변 환경 특징을 유지하고 있음
수정 및 보완 ("23.04.)	• 암각화의 진정성은 높은 수준 • 엄격한 개발 통제가 핵심 가치의 원형 유지에 긍정적 역할 • 지형 일부 변화 요소(고(古)환경, 댐 건설)가 핵심 가치에 미친 영향 서술 - 고환경(구하도, 해수면 변동)은 암각화 제작 이전 상황임 서술 - 댐 건설로 인한 지형 변화는 보존 노력으로 대부분 원형을 회복함 언급

○ 비교분석 : 연구 범위 및 순서 전면 수정

구분	내용
기존 ("22.12.)	• 신청유산의 가치 ①입지 환경, ②미적 우수성·회소성, ③오랜 제작 전통 • 가치별로 비교유산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여 의미 검토
수정 및 보완 ("23.04.)	• 핵심 속성 중심 가치 비교 ①미적 우수성· 주제 회소성 (고래의 종류· 고래사냥그림의 단계) ②오랜 제작 전통(그림에서 확인되는 사회 단계) • 국내, 국외(등재, 미등재) 유산별로 지리문화적 맥락에 맞추어 의미 검토 ※비교검토결과 - 고래 종 구별· 사실적 창의적 묘사, 고래사냥의 전 단계가 확인되는 유산 - 여러 사회 단계 반영, 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산 ▶동아시아 암각화 문화 이해 기여, 지리적 분포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음

○ 보호관리계획 : 보완

구분	내용
기존 (“22.12.)	• 유네스코 변경 양식 수정 • 추진단→암각화센터(확대 운영), 스마트 모니터링 구축, 보존관리계획용역 추진
수정 및 보완 (“23.04.)	• 보호관리 관점 전환 - 사연댐 건설 이후 제시된 여러 보존대책을 유산 보존 노력의 일환으로 서술 ▶ 사연댐 여수로 수문 설치, 바위면 보존처리, 기관협력체계 구축은 모두 유산의 완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의 산물임 - 이해당사자의 합의 과정을 시민사회의 성숙 및 가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식 ▶ 개발과 보존의 조화 사례로 제시 • 콘트롤 타워로서 반구대암각화세계유산추진단 중심의 안정된 관리체계 구현 - 설립목적 : 중앙·지방정부의 문화재 행정 통합 조율, 관리계획 추진 - 향후계획 : 등재 이후 통합모니터링 체계 실현 및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반구대암각화센터 조직으로 확대 검토 • 중앙 및 지방정부의 법적 분업에 따른 철저한 모니터링 수행 중 - 일반 모니터링(전 구간) : 안전경비원, 현장 모니터링, 문화재 돌봄사업 등 - 특수 모니터링(바위면) : 정기조사, 중점 모니터링, 3D정밀스캔 등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 사진촬영, 구조안전계측 (매일 실시) ▶ AI 기반 보존환경 모니터링 스마트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준비 중

바. 소관부서 검토 의견

- 이번 등재신청서는 등재신청후보 신청서의 고도화 지원을 위한 3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유산명칭, 등재기준, 비교연구, 보존관리 내용이 보완 되는 등 기존의 여러 지적사항들이 개선됨
- 심의 단계별로 집필진, 전문가, 문화재청의 검토를 통해 신청서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신청후보 단계에 신청유산이 적합한지의 대해 문화재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사.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신청유산의 구성요소에 반구대 계곡을 포함하고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할 것
 - OUV 기술에 반구대 계곡 내용을 포함하고 신청유산의 국문명칭을 조정할 것
 - 신청유산의 지속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존대책(물 관리 등)을 수립할 것
 - 출석 8명 / 가결 8명

검 토 사 항

3. 「한국의 갯벌」(2단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검토

가. 제안사항

「한국의 갯벌」(2단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1년 ‘한국의 갯벌’(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세계유산 등재시 세계유산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OUV 강화를 위한 2단계 확장등재 추진으로, 권고사항인 9개 갯벌* 중 전라남도 무안 갯벌, 고흥 갯벌, 여수 갯벌(3개소)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에서 신청한 「한국의 갯벌」(2단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검토 받고자 함 ※ 확장 등재

* (인천(강화, 영종도, 송도), 무안, 군산, 고흥, 여수, 화성, 아산·당진)

다. 등재추진 경과

- 2021년 ‘한국의 갯벌’ 추진경과
 - 2010 : ‘한국의 갯벌’ 잠정목록 등재
 - 2018~2019 : ‘한국의 갯벌’ 등재신청서 제출 및 완전성 검토 반려, 등재신청서 재제출 및 현지실사
 - 2021.5. : IUCN의 ‘반려’ 권고
 - 2021.7. :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 권고사항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 확대
- 추가로 등재될 9개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 구축
-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
-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 강화

- ‘한국의 갯벌’(2단계) 확장 등재 추진경과
 - 2022.1.~10. : 2단계 확장등재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자체 협의(11개 지자체)
 - 2022.3~11. : 등재추진 전담기구 조직 운영 등 지자체 의견수렴 및 2단계 대상 지역 주민설명회 개최(4개 지자체)

- 2023.1. : 2단계 등재 추진 확대등재부 구성 및 지자체 직원 파견 완료

라.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잠정목록 등재신청 대상 선정 여부 결정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 신청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신청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마. 잠정목록 등재신청서(안) 주요 내용(*세부내용은 신청서 참조)

- 제시한 유산명칭 : 한국의 갯벌(2단계)
- 신청유산(3개소)

연번	구성요소 명칭	지역	지리적 위치
1	무안 갯벌	전라남도 무안군	N35°02'46.18" E126°20'17.26"
2	고흥 갯벌	전라남도 고흥군	N34°42'05.23" E127°26'36.12"
3	여수 갯벌	전라남도 여주시	N34°44'32.77" E127°34'24.37"

○ 등재기준

- (x) 과학이나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멸종위기 종 등 생물학적 다양성의 현장 보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연서식지를 포함해야 한다.

○ 등재기준 상세내용

-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놓여 있는 황해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의 중간에서 수백만 마리의 이동성 물새를 부양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생산적인 갯벌 생태계 가운데 하나이자 자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청유산은 홀로세 이후 형성된 지구상의 모든 갯벌서식처를 포괄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식처는 멸종위기종, 고유종을 포함하여 300여종 이상의 생물종을 부양하고 있다. 특히 신청유산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를 이용하는 국제 위협종 물새에게 중간휴식처이자 에너지 공급처로서 역할하고 있어 전 지구적 중요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신청유산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국제적으로 위협받는 이동성 물새종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며, 국경을 넘어 공유된 자연유산에 대한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사례이다.

-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로에서 5천만 개체로 추정되는 물새 중 많은 수가 동아시아의 서식지(nesting area)에서 시베리아 알래스카와 같은 북부지역, 그리고 대양주와 같은 남쪽의 비번식지까지 매년 이동시기에 황해의 연안 습지에 의존한다.
-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로는 22개국에 걸쳐 있으며 멸종 위기에 처한 이동성 물새의 수가 가장 많고, 철새의 다양성이 가장 높으며, 세계 8대 주요 이동 경로 가운데 가장 높은 조류 개체수를 갖고 있다.
- 신청유산이 포괄하고 있는 다양한 서식지는 다양한 종의 이동성 물새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서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유산은 20여종의 국제 위협종 및 위협근접종을 포함하여 60여종의 물새를 부양하고 있다.
- 신청유산은 2종의 멸종위기 해양무척추동물을 포함한 250여종의 저서생물과 50여종의 염생식물 등 총 300여종 이상의 생물다양성을 나타낸다.

바. 소관부서 검토 의견

-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2단계 확장등재 관련 잠정목록 등재 신청 검토건으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6년)까지 유산구역 확대 등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이 필요함
- 문화재청 예규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잠정목록-우선등재목록-등재신청후보-등재신청대상>의 각 심의단계별로 집필진, 전문가, 문화재청의 검토를 통해 신청서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려하면서 ‘잠정목록’ 단계에 신청유산이 적합한지의 검토가 필요함

사. 의결사항

- 원안 가결
 - 출석 8명/ 가결 8명

4. 공주 신관동 주변 주상복합 건설 관련 세계유산 영향분석 검토

가. 제안사항

충남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사업에 대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 주변에 주상복합 건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인은 '공주시'의 요청에 따라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118bis)'에 의거 세계유산영향평가(HIA_Scoping Report 단계)를 실시하였고, 해당사항에 대한 문화재청의 검토의견을 요청('23.2.27.)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주)씨앤디

(2) 세계유산 개요

- 세계유산(구성요소)명 :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
- 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금성동 53-12

(3) 신청내용(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관동 608번지 주상복합 신축공사
- 대지위치 :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도시지역, 여객자동차터미널 저축, 중점경관관리구역
- 대지면적(연면적) : 17,000.20㎡(지상137,257.4261㎡(피난안전구역 포함)/지하70,471.5771㎡)[합계: 207,729.0032㎡]
- 건축면적 : 10,703.5214㎡
- 용적률/건폐율 : 793.44%(법정: 800%이하) / 62.96%(법정: 80%이하)
- 세대수(규모)/구조 : 938세대(지하5층, 지상45층) / 철근콘크리트조

(4) 그간의 추진경과

- ('21.1월) 608부지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신청에 대한 의견요청
- ('21.2월) 「세계유산협약」 및 관련규정 종합검토 후 적의조치 할 것
- ('22.7.12) 문화재위원회(세계유산분과, 사적분과) 합동 현지조사

- 조사결과 : 주상복합 개발사업 관련 세계유산 영향평가 추진경과 확인필요
- 공주시 : 사업시행자 측에서 용역사를 통해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을 회신('22.7.21)
- ('23.1.3) 사업자측의 충남건축위원회 심의(건축,교통)신청에 따라 관련자료 제출 및 의견요청
- ('23.1.19) 의견제출
- 주요내용 : '공주시'에서 제출한 자료는 불충분, 22년 유네스코 발간자료를 참고하여 영향평가 실시권장, 또한 유네스코와의 사전협의를 위한 Scoping Report를 '23.2.28까지 제출요청
- ('23.2.27) 추가 보완자료 제출

(5) 공주시 및 신청인 의견

<공주시>

-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는 공주시 신관동 609번지로 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이 이전된 현재까지 이해관계자 간 재산권 분쟁 등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음. 옛 시외버스터미널 건축물은 버스터미널 및 상가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어 도심 환경문제 및 시민 안전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음
- 해당 번지는 사적 및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의 문화재 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를 초과하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에서 벗어나 있으나, 공주 공산성에서 직접 조망되는 고층 건물의 신축 행위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됨. 이에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HIA)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사항

지난 2010년에 신청인과 다른 사업자가 해당부지 내 상기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 건물(4동, 805세대, 43~44층, 최고높이 114.6m)을 신축하고자 했으나, 문화재청의 의견과 재산권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최종 반려 처리된 이력이 있었음.

- 공주시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접수
- 문화재청 :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던 「백제역사유적지구(공주 공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훼손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 규모 조정요청

<신청인>

-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는 과거 공주 버스터미널로 사용되다 터미널 이전 후 지난 20년간 방치되어, 주변 노후된 건물들과 함께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범죄 등 우범지역으로 전락하였음. 과거 몇 차례 재생사업이 시도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현재 공주시의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과제임

- 사업대상지는 금강 이북 신시가지 권역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500m(2구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에서 벗어나 있음. 본 사업은 백제고도 및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 보존에 노력하는 동시에 인구감소, 성장동력 고갈 등 심각한 지역 문제 해결에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 본 사업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공주시’의 요청에 따라 공산성에 시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음. 공주시 경관계획 중 「중점경관 관리구역지침」을 설계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초기 설계 계획을 변경하여 금강 쪽 공산성 방향으로 높이를 낮추어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변화감 있는 스카이라인”(충청남도 경관심의 심의사항)을 형성하였음
- 현재 경관 사전심의 및 본심의(2021. 11)를 거쳐 충남 건축·교통 통합심의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이며, 공주 신관지구가 개발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공주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림

라. 검토의견[세계유산정책과]

- ‘23. 1. 19. 문화재청은 ‘공주시’에 위 사항 관련 자료 불충분으로 관련 자료 참고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23. 2. 27. ‘공주시’는 내용 보완 후 다시 제출함
- 지난 3. 9(목), 제2차 문화재위원회(세계분과)에서 검토한 결과 ‘보류’를 의결하였음
 - 보류사유 : 세계유산영향평가(Scoping Report) 자료의 내용과 요건이 불충분하므로 자료 보완 후 재검토 필요
- 전술한대로 해당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및 ‘세계유산 완충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지만, 주상복합 완공 시 <공주 공산성>에서 건축물이 조망되는 상황으로, 보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사항

유네스코는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118bis)’ 등에서 유네스코 등재구역(유산구역, 완충구역) 외 더 넓은 환경(wider setting)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유산영향평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법적근거(대상, 절차 등)는 없으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21.12.8.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 등) 박정 의원 대표 발의, ’23.3월 현재 법사위 계류 중

마. 향후계획

- ('23. 5월 ~) 문화재위원회 가결 시 '공주시'에서 제출한 Scoping Report를 토대로 유네스코 사전협의 추진

바. 의결사항

- 보류
 - 본 개발계획은 공산성이 지니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HIA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세계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해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출석 8명 / 보류 8명